

# ESS 최적 운용 가능한 통합 솔루션 출시

## 시너젠, ESS 활용 분산 전원 시스템 관리 '안성맞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출시됐다.

시너젠(대표 윤금란)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S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 'EnerMONS v1.0'을 출시했다. 시너젠은 서울에서 주관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및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nerMONS v1.0'은 에너지 수요·공급, 판매를 돕는 서비스다. 수용가에 설치한 ESS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빌딩(BEMS), 공장(FEMS), 피크컷, 마이크로그리드, PMS 등 다양한 ESS 시스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각각의 시스템 간 성능·장애를 통합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다.

시너젠은 지난 8월 16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S 1등급 인증 제품은 조달 우선구매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고, 중소기업 경쟁성인증 획득도 가능하다.

EnerMONS를 이용하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운용하던 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추가 설치했을 때 별도의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공조장치, 신재생에너지, 피크컷 등 다양한 조합으로 ESS를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 관리,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통계 및 분석 자료 제공, 원격 S/W 자동 패치 및 업그레이드, 에너지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스템이 분산 운영되는 인프라 환경에서도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24시간 무장애 시스템 가동을 위한 감시 체계도 갖췄다. 장애발생시에는 SMS, SNS, 이메일



로 알람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외에도 미들웨어 서버 관리 제품과 네트워크 장비의 CPU 사용량을 감시하는 네트워크 감시 솔루션 기능도 포함했다.

시너젠 관계자는 "EnerMONS v2.0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IoT 기반 스마트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 18일부터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낸다

###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할 경우만 적용, 유료도로에서도 할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인 하이패스 요금 감면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단 도로공사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는 물론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소나무 한그루가 줄이는 7.3kg보다 더 많은 8.6kg에 달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단말기를 등록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

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뒤 사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단말기의 경우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선 단말기 교체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 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전에는 전기·수소차에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지자체 유료도로(부산 광안대로, 대구 밤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 ~ 의왕 고속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도로 등)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차 보급 추이를 고려, 지속해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할인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위대용 기자

## A2B, 접이식 전기자전거 2018 쿠오부스트 출시

### 합리적인 가격·뛰어난 성능 자랑...출퇴근 직장인에 인기

영국 전기자전거 브랜드 A2B가 2018년형으로 업그레이드한 접이식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쿠오부스트(Kuo Boost)'를 출시했다. 쿠오부스트는 프레임과 헤드 스템을 접으면 작은 바퀴 크기로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은 모델이다.

2018년형 쿠오부스트는 부품의 구성부터 대폭 개선됐다. 독일 자전거 용품 브랜드 SKS의 머드가드와 캔다라이트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고, 프레임에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물쇠는 옵션으로 지원한다. 케이블 락과 세트로 장착이 가능한 프레임 일체형 자물쇠는 모두 네덜란드 자전거 보안 전문 기업 AXA의 제품이다.

2018년형은 택트모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해 안전한 주행 성능도 보장한다. 브레이크 레버에 전원을 차단하는 센서를 내장해 제동 시 모터의 동력을 즉각 차단, 주

행 안정성을 한 단계 높였다. 더불어 2중으로 체결되는 핸들 폴딩 클램프와 시트클램프로 폴딩 한지 부분이 더 견고해졌다.

2018 쿠오부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폴딩이다.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접으면 작은 바퀴의 사이즈로 부피를 줄일 수 있어, 보관이나 차량 적재가 용이하

다. 모터 출력은 350W, 최대 지원 속도는 36km/h이며, PAS(페달링 지원 시스템)와 스로틀(자동주행) 두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500Wh, 14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장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A2B 관계자는 "쿠오부스트는 출퇴근 주행에 최적화된 전기자전거"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덕분에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 현대차,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서 유럽 시장 '정조준'

### 아이오닉 전기차 플라인업, 신규 모델 i30 선보이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종으로 확대키로

현대자동차가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유럽시장을 겨냥한 친환경차를 선보였다.

현대차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에서 열린 모터쇼에 참가해 '고성능·SUV·친환경'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유럽 시장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현대차가 선보인 차량은 아이오닉 플라인업, 고성능 모델 'i30 N'과 스포츠 모델 'i30 페스트백' 등을 비롯해 소형 SUV 코나 등이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전용모델인 아이오닉 플라인업 전시와 동시에 프레스데이 기조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미래 비전도 발표했다. 현재 현대차가 보유한 친환경차는 7종이

다. 아이오닉 존에는 유럽시장에 출시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아이오닉일렉트릭, 아이오닉 플러그인 등 3가지 라인업을 전시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



스테인 '카파 1.6L GDI 엔진·6단 DCT'와 아이오닉 라인업의 특징점을 볼 수 있는 '아이오닉 디지털 월'을 전시한 게 특징이다.

현대차는 또 올해 말 유럽에 정식 출시할 i30 N과 i30 페스트백을 선보여 기대를 모았다. i30 N은 현대차가 지난 2015년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라인업 개발 계획을 밝힌 뒤 2년여 만에 탄생한 모델이다. i30 페스트백은 현대차가 모던 프리미엄 브랜드 철학을 반영해 고객에게 프리미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차량이다.

김현정 현대차 유럽법인장은 "올해는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특히 내년 차세대 수소전기차 출시를 시작으로 고성능차,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충해 판매 신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www.kepco.co.kr

##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KEPCO글로벌에너지벨트'

#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뤄집니다!

한국전력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넘어 북미와 중미까지 확대되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KEPCO글로벌에너지벨트'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으로 함께 합니다!



해위수출 파트너십(KEPCO Trusted Partner) 제도 국내 공기업 최초로 도입 기술력은 있으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보증 제도